[UCI]I804:24011-200000233281

*2006*년 *8*월

교육학석사(체육교육)학위논문

하키경기 시 심판판정 인지도에 관한 조사 연구

An Analysis of the Perception of Referee Decisions during Hockey Games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김 철

하키경기 시 심판판정 인지도에 관한 조사 연구

An Analysis of the Perception of Referee Decisions during Hockey Games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김 철

하키경기 시 심판판정 인지도에 관한 조사 연구

An Analysis of the Perception of Referee Decisions during Hockey Games

*2006*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김 철

하키경기 시 심판판정 인지도에 관한 조사 연구

지도교수 이 경 일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체육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6*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김 철

김 철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합니다.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2006*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3
3. 연구 가설 ····· 3
4. 연구 제한점 ····· 4

Ⅱ. 이론적 배경 ····· 5
1. 하키의 역사 ····· 5
2. 근대 하키의 전개 ····· 6
3. 한국 하키의 역사 ····· 6
4. 한국 하키의 전개 ····· 7
5. 하키 경기의 특성 ····· 8

Ⅱ-1. 하키경기와 심판 ····· 10
1. 하키 경기에서의 심판의 중요성 ····· 10
2. 하키 심판의 역할과 기능 ····· 11
3. 하키 심판의 자질과 자격 ····· 12
4. 심판의 책임 ····· 14
5. 하키 심판의 판정 및 운영 방법 ····· 14

Ⅱ-2. 운동의 태도 ····· 16
1. 태도의 개념 ····· 16
2. 태도의 특성 ····· 18
3. 태도의 기능 ····· 19

Ⅲ. 연구방법 ····· 20
1. 연구 대상 ····· 20
2.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분석 ····· 21
3. 연구 기간 ····· 22
4. 조사 도구 ····· 23
5. 조사 방법 ····· 23
6. 자료처리방법 ····· 23

Ⅳ. 연구 결과 ····· 25
1. 성별에 따른 심판의 인지도 ····· 25
2. 소속에 따른 심판의 인지도 ····· 26
3. 포지션에 따른 심판의 인지도 ····· 28
4. 경력에 따른 심판의 인지도 ····· 30

Ⅴ. 결론 및 제언 ····· 32

1. 결론 ····· 32
2. 제언 ····· 33

참 고 문 헌 ····· 35

부 록 ····· 37

표 목 차

표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20
표2. 심판판정의 인지도 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 21
표3.심판의 인지도에 대한 신뢰도분석 결과 ····· 22
표4. 성별에 따른 심판 인지도 ····· 25
표5. 소속에 따른 심판의 인지도 ····· 27
표6. 포지션에 따른 심판의 인지도 ····· 29
표7. 경력에 따른 심판의 인지도 ····· 31

국문초록

하키경기 시 심판판정 인지도에 관한 조사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체 육 교 육
김 철

본 연구는 하키경기의 심판 판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불공전한 판정을 줄이기 위해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하키 심판들에 대한 선수들의 인지도를 조사하여 심판이 지닌 문제점을 제시하고, 심판상호간의 신뢰회복과 경기발전의 개선책을 목적을 두고 2006년 대한하키협회 하키선수로 등록된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남.여 각 각50명씩 총3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통계프로그램인 SPSS11.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심판인지도문항의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성별에 따른 심판의 인지도 중 성별에서는 심판판정($p<.05$)을 제외한 공정성, 경험정도, 심판자세, 경기영향력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모든 인지도의 하위요인에서 여자선수가 남자선수보다 높게 응답을 하였다.

2. 소속에 따른 심판의 인지도 중 공정성에서는 심판 자세를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에서 고등학교선수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공정성($p<.001$), 경험정도($p<.001$), 경기영향력($p<.001$)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3, 포지션에 따른 심판의 인지도 중 경험정도에서는 경험정도($p<.001$)요인과 경기영향력($p<.001$)요인을 제외한 심판판정, 공정성, 심판 자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4. 선수경력에 따른 심판의 인지도 중 공정성에서는 경력이 작은 4년이하 선수들이 모든 하위요인에서 높은 응답을 하였으며, 경력이 높아질수록 낮은 응답을 하여, 공정성($p<.001$), 경험정도($p<.001$), 경기영향력($p<.001$)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An Analysis of the Perception of Referee Decisions during Hockey Games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Physical Education

Cheol, Kim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nhance the credibility of hockey referees and reduce unfair calls. Also, the perception held by hockey players toward referees were analyzed to identify the problems of the referees, and restore the credibility among referees and further the development of the game itself. A total of 300 registered hockey players, 50 players each from a men's/women's high school, university, and business team, were surveyed. Utilizing the SPSS11.0 statistics program, frequency and variables were analyzed in coming to the following conclusion.

1.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genders in matters of fairness, experience, posture, effect on the game that referees have except rulings($p<.05$). All responses on factors were higher in the female group than the male group.

2. High school students showed positive responses for all factors except referee's posture. There was no statistical difference in fairness($p<.001$), experience($p<.001$), and influence($p<.001$).

3,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referee's judgment according to position, fairness, posture, except for experience($p<.001$) and influence($p<.001$).

4. Players with 4 years' experience or shorter gave positive responses on all lower factors. More experienced players did not respond as high. Not much difference was shown in responses for fairness($p<.001$), experience($p<.001$), and influence($p<.001$).

Ⅰ.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1세기 현대 사회의 스포츠는 대중적인 스포츠, 레저 지향적 스포츠, 생활체육으로서의 스포츠로 급격히 활성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엘리트 선수를 중심으로 한 경기 지향적 스포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 안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일탈 행동 형태가 점차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스포츠 장면에서 일탈 행동이 발생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스포츠의 내재적인 속성인 경쟁성과 불확실성 때문이다.

승패를 다루는 경쟁 스포츠는 본질적으로 서로 실력을 견주어 승·패를 쟁취한다는 경쟁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항상 규칙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이 규칙의 적용을 통해 경기의 흐름을 원만하게 진행시켜 가는 것이 심판이 가지는 가장 큰 역할이다. 이러한 심판과 선수 및 지도자간의 판정시비에 관한문제는 공공연히 스포츠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심판의 자질, 심판의 편파 판정 심판의 금전 매수 문제 등이 논란이 되기도 한다, 심판과 선수 및 지도자의 갈등은 스포츠의 본질이 경기 승패에 있으며, 심판 판정이 승패에 직접적인 결정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박상록,1996 김희중2000). 심판은 경기 중에 일어나게 되는 반칙행위에 있어 모든 경기에 관계된 관련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정한 판정을 정확하게 내려주어야 하며 이러한 선수, 지도자, 관중 및 선수들로부터 신뢰받는 심판이 되기 위해서는 심판 기술에 대한 연구와 심신의 조화를 위한 노력을 수시로 해야 하며, 강한 정의감 , 주의력과 집중력, 강인한 체력 등이 필요하다(최재만,1982). 특히 하키경기에서의 심판은 뛰면서 신경을 써야 하고 몸과 스틱이 부딪치는 격렬한 경기로써 순간 일어나는 반칙을 놓치게 되고, 반칙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가 발생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판정의 결정이 고의적이든 아니든 간에 경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김희중(2000)은 “하키심판 판정이 중·고등학교 선수들의 의식 및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심판의 부정확한 판정은 운동 경기에 있어 유해 요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고 심판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 또한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측면이 부각 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들은 심판과 선수간의 신뢰회복에 장애가 되고 원활한 경기진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였다.

심판은 경기장 내의 행동이 경기가 갖는 공통적인 이념에 적합한가를 공정하게 판정하고 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경기장에서는 어느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되고, 누구도 심판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에 도전할 수 없으며, 심판의 권한은 항상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선수가 공정하게 경기하는데 심판의 능력과 정확한 심판 판정은 곧 선수의 기술수준 향상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다양한 스포츠 장면에서 나타나는 반칙 행위는 심판의 제재를 피해서 발생하면 이러한 반칙행위는 공격적인 차원에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선수들의 반칙행위는 승리를 목적으로 한 수단적 공격이라기보다는 적대적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수단적 공격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적대적 공격 형태로 행위가 변화 된다(이정래, 2000;Butcher : Schneider,1998). 특히 하키경기는 그 특성상 11명의 선수들이 인조 잔디 위에서 스틱과 볼을 이용하여 경기를 실시하므로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위험성과 심판 판정의 문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많은 신체적 반칙행위들이 나타나는 종목이며 수단적 공격이 아닌 적대적 공격 형태의 반칙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정 하지 못하게 되면, 경기내용 및 분위기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또한, 재빠른 수비와 공격의 연결에 따른 공간적 이동을 신속히 따라주지 못하면 정확한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공간적 위치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이 결과 심판 판정과 관련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FHI,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판 판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불공정한 판정을 줄이기 위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심판들의 판정능력 수준 및 공정성에 대한 선수들의 인지도를 조사하여 하키경기 시 정확한 심판 판정을 통해 경기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하키 심판들에 대한 선수들의 인지도를 조사하여 심판이 지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선수와 심판 상호간의 신뢰 회복과 경기 발전을 위한 개선책을 모색하는데 있다.

3. 연구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하키 심판들에 대해 선수들의 인지도를 조사하여 심판이 지니는 문제점을 추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선수들의 인구사회학적특성(성별, 종별, 운경경력, 포지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특성(성별, 종별, 운동 경력, 포지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1. 성별에 따른 심판의 인지도 (심판판정, 심판의 공정성, 심판의 경험, 심판의 자세, 심판에 의한 경기영향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소속에 따른 심판의 인지도 (심판판정, 심판의 공정성, 심판의 경험, 심판의 자세, 심판에 의한 경기영향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포지션에 따른 심판의 인지도 (심판판정, 심판의 공정성, 심판의 경험, 심판의 자세, 심판에 의한 경기영향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선수경력에 따른 심판의 인지도 (심판판정, 심판의 공정성, 심판의 경험, 심판의 자세, 심판에 의한 경기영향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현재 하키심판의 경기 판정에 대한 선수들의 인지도를 조사하는 것으로써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1. 본 연구의 자료는 최근 경험했던 주관적 기억이나 느낌 등을 통해 도출하였기 때문에 경험에 따른 내용을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2. 본 연구는 전국규모 대회에 출전한 경험이 있는 고등학교·대학교·실업 팀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전국의 중학교, 전체 하키선수들의 인식을 반영하지 못할 하였다.

3. 본 연구에서 연구 절차는 설문 조사를 통한 질의응답에 의한 것이므로 선수들의 심리적 상태는 고려하지 못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하키의 역사

하키(Hockey)의 뿌리는 고대 유적 속에 깊이 묻혀 있다 선사 시대의 동굴 벽화에서 발견된 벽화는 선사인들 의 야구아돈(공룡의 일종)과 전투를 벌이지 않을 때는 오락으로서 원시적인 채로 돌을 때렸다는 상상에다 물증을 보태고 있다.

역사적 기록들은 이런 초보적인 s하키의 형태가 이집트에서 기원전 4,000년전에 , 이디오피아 에서는 기원전 1,000년 전에 행하여 졌다고 보여 진다. 테미스토클레스(Temistocles) 시대의 그리이스인들의 최초로 팀 경기를 했었고 (BC 525-449), 남아메리카의 아즈텍(Azte) 문명의 사람들과 북아메리카의 붉은 인디언 종족들도 콜롬부스 의 시대륙 발전전의 수 세기 동안 원시적인 Stick and ball home을 하였다(신현주,1994). 이와 같이 하키의 시작에 대한 정확한 시대와 장소는 여전히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학자들의 탐구 중에 가장 유력한 가설은 Stick and ball home 즉, 하키가 폴로가 발명된 페르시아에서 출현했다는 것이다. 페르시아 지방에 말이 보급되기 이전 에 발로 뛰는 하키를 하였고, 그리스 에서 행해지는 경기의 형태는 로마 정복자들에 이해 채택되어져 파카니카(Pagznika)로 발전 되었다 파키니카는 구부러진 스틱과 깃털로 된 가죽공 으로 진해되는데 로마 군단에 의해 정복된 유럽 각국에 성행하게 되었다. 이 무렵 독일의 콜베, 네덜란드의 헤트콜빈, 아이슬랜드의 Kuetteikr, 프랑스의 gounethocquet, 아일랜드의 hurley, 스코틀랜드의 Shinty, 웨일즈 지방의 bandy라는 이름으로 하키가 행해졌으며, 이에 따라 하키 역사의 권위자인 테스몬드 모리스 박사는 축구가 고작 수세기의 역사를 가진 반면, 하키는 수 천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역설하였다. 파리밋의 프레스코 벽화에 발견된 그림과 나일강 계곡의 조각들은 두 명이 날카로운 갈고리를 가지고 공을 다루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키 역사의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임번장과김동진,1985, 김상순,1997).

2. 근대하키의 전개

근대 하키는 1887년 영국에 하키 협회가 설립되기 시작하면서 영국과 유럽권 국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발전되어 왔으며, 오늘날 와서 스포츠맨 쉽에 근거한 규칙과 규정을 가진 정식 경기로서 발전하게 되었다. 최초의 하키시합은 1887년의 영국에서 서리(Surry)와 미들섹스(Middle Sex)의 게임 이었다. 대학 시합으로써는 1890년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과의 경기가 처음 열렸다. 영국 하키협회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위일즈라 는 네 곳의 지역을 포함하고 그들 지역 간의 활발한 하키경기를 벌이면서 급속하게 발전 되었으며, 1908년 런던에서 개최된 제4회 올림픽 대회 때부터 네 곳의 지역 이외에 2개국의 6개 팀이 참가하게 되면서 정식 경기로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영국식민지로 파급되어 인도, 파키스탄 에서도 하키를 받아들이게 됐고, 또한 영연방국가로서, 남반구의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에도 보급되어 착실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김희중2000).

최초로 올림픽에서 시범 경기로 이루어진 시기는 1904년에서 연린 제 4회 런던 올림픽 때부터 이었으며, 제 7회 앤드워프올림픽 대회ㅣ가 실시하였으나, 제8회 파리 올림픽 대회 때 다시 제외 되었다. 그해 1928년 제 9회 암스테르담 대회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24년에는 파리에서 국제 하키 연맹(FHI : federation Internaton Hockey)이 창설되었으면 이후 많은 국가에서 가입 하였다.

3. 한국 하키의 역사

한국의 하키 종목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 전해졌다. 즉, 중국의 당나라 태종 때부터 격구라는 명칭으로 하키와 유사한 경기가 행하여져, 이것이 고구려, 신라, 백제에 전파된 것이다. 이 격구가 고려시대에는 궁중의 뜰에서 성행되었는데 매년 단오절에 길 양편에 비단 장막을 둘치고 국왕과 백과 그리고 귀부인, 귀공자들이 참석하여 대 성황리에 행해졌으며, 우수한자에게는 상을 주었다. 그리고 격구는 중국의 당나라와 같이 극히 드물게 우리나라에 있어서 여성들에서도 행하여졌다. 격구는 원래 무술로서

행하여졌다. 고려시대는 국가적 행사로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거행되어 왔으나, 조선시대는 태조 이성계 자신이 격구의 명인이었지만, 부패된 고려말의 정세에서 볼 때 건전한 기풍을 해칠 우려가 있어 격구를 금지시켰다. 그러나 세종시대에는 격구를 무술로서 인정하고 기법과 채점법 등을 확립하였으며, 과거 시험에 격구를 하나의 과목으로 채택하여 각광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성행한 격구는 일반 서민에게까지 전해져 장치기 또는 얼레공치기 란 이름으로 방방곡곡에서 성행하였다. 그러나 유생들의 무예 멸시 사상은 격구의 불가함을 간하여 격구는 차차 쇠퇴어가고 말았다. 그러나 그 후에도 일반 서민들 사이에는 장치기 들공치기, 땅콩치기 등으로 여러 지방에서 가을 추수가 끝난 다음 동리별로 시합을 하고 있었던 것을 엿볼 수 있다.

4. 한국 하키의 전개와 발달

우리나라에서 현대식 하키가 스포츠 종목으로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해방 후인 1947년에 이르러서였다 해방 전에는 체육인들 중에 이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더러 있었지만 실현할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 해 1947년 6월 7일 이화여대 체육과에서 최경달, 장태영, 백삼출, 김성수, 김형수, 홍윤표, 김병욱등의 발기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 하키 협회의 창립을 보았다, 그리하여 10월 13일부터 경기가 시범경기로서 등장하여 한국최초의 시합이 거행되었다. 1948년 10월에는 제 3회 조선 올림픽 대회에도 하키 경기가 거행되었으면 중동 중학이 우승했다. 그리고 1949년 7월에는 3일간 서울운동장에서 조영하, 김성구, 홍윤표를 강사로 하는 하키 지도자 강습회가 열려 거국적이 보급을 꾀하였다. 그 이후, 국내적으로 다시 하키발제에는 기틀을 마련하여 1957년9뭘 26일 대한 필드하키 협회가 다시 조직되었고 1957년 8월에는 서울시문사의 초청으로 교포 하키단이 방분하여 시범경기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하키의 기술 발전에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우리나라 하키의 종합선수권 대회는 1957년 서울운동장에서 제1회 대회가 개최되었는데 그 당시 재일교포팀이 서울 사대팀을 물리치고 1위에 입상하였다. 또한 그 결과 1958년 동경에서 개최된

제3회 아시아 경기대회에 우리나라 하키팀 이 국제무대에 처녀 출전 하여 당당히 3위의 성적으로 입상하여 국내 팬들은 열광시켰다(조명준,2000).

한국의 하키 경기는 1970년도 후반에 이르러 개인기를 바탕으로 한 인식하키 형태를 타파하기 위하여 유럽 여러 나라에서 체력과 스피드를 위주로 경기를 운영하는 유럽식 스타일을 창안하여 각종 국제 대회에서 임하였다(김원철,1986).

이 결과,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남・여 두팀이 인도, 파키스탄을 꺽고 동반우승을 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이후 한국 하키는 세계강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하키 강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더욱이 1988년에 열린 서울올림픽에서는 여자 하키팀이 은메달을 획득함으로써 세계 정상의 기술 발전을 이루었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남자 하키팀 역시 지난 히로시마 아시안 경기대회에서 세계최강인 파키스탄을 꺾고 금메달을 획득하였으며, 제27회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세계 강호 네덜란드를 맞아 팽팽한 접전을 펼친 결과 아깝게 은메달을 획득하며 세계 놀라게 하였다. 이어 2002년 8월에 있는 부산 아시아경기 대회에서 남자 하키는 결승전에서 아시아에 강호 인도를 맞아 접전 끝에 금메달을 획득 하므로써 세계 랭킹 4위 까지 하면 세계적으로 자리를 한국에서도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5. 하키 경기의 특성

하키경기는 1야드(91.43cm) 스틱을 좌측 평면만 사용하여 직경 4,78cm의 작은 공을 사용하고 경기장은100야드(91.43m), 폭60야드(54.85m60야드)로 이루어진 경기장에서 실시하는 종목으로서, 반드시 16야드(15.50m)안에서 슛팅 를 하여 4야드(3.7m) 높이는 (2.10cm) 골대에 볼을 넣어야 한다. 한 팀이 11명의 선수로 구성되어 실시되기 때문에 각 개인 기술뿐만 아니라, 전술의 중요성이 매우 높은 경기다. 최근 대부분의 하키경기가 인조 잔디구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어느 구기 종목보다 매우 빠르게 진행 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1996년부터 업사이드 규칙이 사라지ㅣ면

서 하키경기는 더욱더 스피드 해지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로 바뀌게 되었다.

하키경기의 심판은 2명의 주심으로 구성하며, 각 심판은 전체경기장의 반을 맡아서 판정하고, 사이드라인은 완전히 한쪽씩 나눠서 판정한다, 경기 진행은 중학교 60분 고・대・실업팀은 70분으로 주어지면 전반전이 끝나고 10분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진다. 골은 한 골을 넣을 때마다 1점씩 올라가며 후반 종료 후 다득점 으로 승・패를 결정하며, 동점인 경우 연장전에서 한 골을 넣기만 하면 경기가 곧 바로 끝나는 골든골 제도로 승부로 결정한다. 선수의 경고 및 퇴장에는 경고(그린카드), 10분 퇴장(엘로 카드). 완전퇴장(레드카드)이 있으며 심판의 판단에 따라 경미한 반칙에 대해서는 주의를 줄 수 있다. 선수교체는 교체의 인원 제한 없이 수시로 교체 할 수 있으며 한번 교체 되어 나온 선수가 다시 경기장에 교체되어 들어갈 수도 있다. 하키 경기는 스틱이란 도구의 사용과 신체접촉이 다른 구기 종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빈번하고, 경기 규칙이 대부분 위험한 행동을 했을 때 반칙이 일어나면 그에 따른 판정이 이루어진다 하키 경기 중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경기 규칙과 반칙에는 하이스틱, 하이볼, 스틱파울, 바디파울, 푸시파울, 백 스틱, 스크린파울, 드래그 파울, 태클파울 등이 있다

Ⅱ-*1.* 하키 경기와 심판

1. 하키경기에 심판의중요성

최근 국제 스포츠 경기의 번성과 운동기술의 향상은 승패에 중대한 가치를 부여하기에 이르러 경기 규칙은 보다 복잡하고 고도화 되었다. 특정 경기의 전문가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한 종목의 규칙만이라도 틀리지 않게 이해하기란 곤란 할 정도로 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경기 관련 협회에서는 공인 심판원제도를 만들게 되었다. 최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판 판정을 위해 아무리 첨단화 된다고 해도 운동 경기에 있어서 심판의 역할은 매우 중요 하다고 볼 수 있다. 심판이 서툴면 관중이나 선수들의 흥미를 감퇴시켜, 결국 불만과 물의를 일으키게 됨으로써 전문화된 심판 기법과 심판원의 자질은 현대스포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김홍대,1974).그러나 다양한 스포츠장면에서 나타나는 반칙 행위들은 선수들의 계획적이고 이성적이며 전술적이 행동으로서 제도화된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경기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용인 되고 있다.

반칙 행위는 심판의 제재를 피해서 발생하며 이러한 반칙행위는 공격적이 차원에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선수들의 반칙 행위는 승리를 목적으로 한 수단적 공격이라기보다는 적대적 공격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수단적 공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적대적 공격 형태로 행위가 변화되는 것이다(이정래.2000).

특히 하키 경기는 11명의 선수들이 인조 잔디 위에서 스틱을 사용하여 경기하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진행 되면서 많은 신체적 반칙 행위들이 나타나는 종목이다. 수단적 공격이 아니 적대적 공격형태의 반칙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정하지 못하게 되면 경기내용 및 분위기는 매우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된 다 또한 재빠른 수비와 공격의 연결에 따른 공간적 이동을 신속히 따라주지 못하면 정확한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공간적 위치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심판 판정과 관련된 많은 문제점이 발샐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2. 하키 심판의 역할과 기능

심판은 경기장의 행동이 경기가 갖는 공통적인 이념에 적합한가를 공정하게 판정하고, 그 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것을 심판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즉 스포츠정신에 근거하여 경기자를 이해하며 책임을 자각하여 항시 주위의 함박과 유혹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과 정의감이 있어야 하고 경기 중에 는 경기 이외의 어떠한 것에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또한 경기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각 선수 및 팀과 의 이해관계로 불의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경기 규칙과 과거 판례에 의한 경험으로 규칙이 가진 정신을 살려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 하다 그리고 규칙과 규율 내에서 경기자나 관중에게 만족할 만한 경기 진행을 보여줘야 할 책임과 역할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심판원은 경기자의 행동이 경기가 갖는 공통적인 이념에 적합한가를 정확하게 판정하고 그 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경기 방법 및 승・패의 판정 기준을 분명하게 명시해주고 경쟁의 절차를 규정하는 스포츠 의 법적 규범인 경기 규칙에 의거하여 선수 개개인의 표정과 행동 나아가 경기장의 경기를 통해서 관주의 심정을 이해하여 경기의 흐름과 그 흐름을 잘 이끌러 연주하는 교향악단의 지휘자와 같은 입장이 되어야 한다(박상록,1996).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경기에 임하는 심판원은 경기 중에 일어난 반칙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경기 관련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즉석에 서 한 판정을 정확하게 내려 주어야 한다. 만약 심판원이 경기 규칙에 입각해 반칙이라고 판정할 경우 경기자로부터 신뢰를 받는 심판원의 판정이라면 선수 자신은 반칙 행위에 대하여 솔직하게 시인하고 반성하지만 불신감을 안고 있는 심판원의 판정이 라면 선수 지도자 관중 등을 통해서 폭력적인 행동과 언어적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더불어 경기 전체의 흐름이나 승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종철,1995).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심판은 경기에 대한 스트레스 상황 속에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인간의 감정 표출과 의식적으로 비스포츠맨적인 행동을 하는 것 사이를 구분 할

줄 알아야 한다. 심판은 전자의 경우와 같은 감정의 표출은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경기가 좋은 환경 속에서 진행되기 우해서는 멋진 플레이이 동작을 격려하고 용기를 복 돋우기 위해 일어서는 것과 같은 팀의 합리적이고 적절한 감정의 표출이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인식하고 있는 부정적인 표현이나 상대 혹은 심판 판정에 항의하는 옳지 못한 도작은 엄격하게 금지 되어지고 체재가 주어지게 된다. 궁극적으로 스포츠 활동을 관장하는 모든 심판원들은 선수 지도자 관중들로부터 신뢰받는 심판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 필수요건으로는 스포츠 장면에 대한 폭넓은 시야와 판단력 그리고 이에 따른 바른 인식과 이해가 필요 하다 이와 함께 심판 시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의 자세와 전전하고 건강한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이루져야 한다. 이밖에도 경기규칙 원래 의도한 기본적인 태도와 정신을 이해하여 경기규칙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불의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경기 규칙이 담고 있는 스포츠 정신을 살려 능숙하게 처리 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필요하다 결국 하키 심판과 같은 심판원들은 종목에 대한 열의와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이해적인 태도 경기 상황에 대한 통계 및 조정능력 그리고 선수들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멋진 경기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심판의 역할과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3. 하키 심판의 자질과 자격

심판은 경기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경자가 없는 심판이란 존재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심판은 경기자를 위하여 각자의 존재 의의가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심판에 임해야 한다. 경기자가 자신의 훌륭한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는 경기진행 중 항상 공평무사의 원칙이 지켜지고 명랑한 분위기에서만 가능하다.

(박찬희.1991) 심판은 그와 관련된 행동을 경기 형장에서만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 특히 수준 낮은 시합에서 경기가 벌어질 때를 전후로 선수들과 접촉하길 바란다면 그것은 심판의 신용과 직결될 것이다 주심은 이와 같은 쓸 데 없는 접촉을

원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 심판은 권위를 강화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페어플레이의 촉진에도 공헌할 수 있게 된다(정말순2000). 따라서 하키 심판은 항상 사심이 없고 공명정대한 마음으로 임하여 모든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랄 수 있도록 교량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면 하키 기술연마에 부단한 노력을 하는 선수들에 버금가는 사명감을 갖고 끊임없이 자기 연마를 통해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한다.

운동선수는 자기가 연마한 결과를 확인하는 기회로서 시합을 중시하는 것이며 그 경기를 위해서 고도의 인내와 노력이 따르는 자기 통제와 훈련에 임 한다 선수는 경기에 최선을 다하여 경험을 쌓고 고도의 신체적 정신적 기술적 향상을 획득하려는 것이다 패자와 승자는 그 결과에 승복하고 심판은 선수들로부터 신뢰와 존경받을 수 있을 때 진정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심판은 경기자를 위하여 각자의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최정혁,1994).

william R. Smith(1999)는 심판이 지녀야 할 자세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기술 하고 있다.

1)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Keep Moning).
2) 프로처럼 보여야 한다(Look professional).
3) 일찍 도착해야한다(Arrive Early).
4) 팀을 만나도록 한다(Meet the Team).
5) 웃는 모습을 보이도록 한다(Show a Smile).
6) 효과적인 시그널을 사용해야 한다(Signal Effectively).
7) 말하는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Don't Be Afraid to Talk).
8) 존경을 표하는 호칭을 사용해야 한다(Respectful Address).
9) 시선을 마주쳐야 한다(Eye contact).
10) 감독관, 경기임원 등과 연락을 취해야 한다(Keep in touch).

4. 심판의 책임

IOC와 UNESCO의 협력 하에 ICSSPE(국제체육·스포츠 평의회)에 의해 내려진 페어플레이에 관한 선언에서 나타난 심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IOSSPE,1998). 심판은 스포츠 경쟁의 본성이 어떻든, 그리고 경기가 꽉 찬 관중들 사이에서 벌어지건 소수의 관중 앞에서의 벌어지건 심판은 규칙에 맞추어 이루어 나가야 할 역할 수적이다. 심판은 재치와 판단 둘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심판은 특별한 권한을 가진다. 심지어 판단이 틀렸더라도 그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방해되어지지만 않는다면 그렇게 따라야 한다. 하지만 심판의 특별한 권리에는 책임감이 뒤따른다. 심판은 모든 규칙과 규정 그리고 최신의 것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움직임이 요구되는 스포츠나 경기의 움직임을 함께 가까이에서 해야 하는 스포츠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체력을 유지해야 한다. 심판의 개성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만큼 작용한다. 자기 통제력, 자신감, 사교성, 고집 모두는 심판의 효율성에 중요하게 기여하는 것이다.

심판은 때때로 운동선수나 심지어 관중들에게 사용하는 언어나 동작이 만족감과 유쾌한 경기를 위해 재정비 조건에 충분한지 깨달아야 한다. 심판은 그와 관련된 행동을 경기 현장에서만 국한 시켜서는 안 된다. 특히 수준 낮은 시합에서 경기가 벌어질 때를 전후로 선수들과 접촉하길 바란다면 그것은 심판의 신용과 직결될 것이다. 심판은 이와 같은 쓸데없는 접촉을 원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 심판은 권위를 강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페어플레이의 촉진에도 공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5. 하키심판의 판정 및 운영방법

하키경기는 다른 구기 종목과는 달리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확한 판정을 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심판의 위치가 중요하다 많은 선수들의 상대적 위치를 신속하게 판단하고 볼의 진행 방향과 정확한 반칙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주로 하키 경기장 밖이나 사이드라인을 다라 움직이자만 경기의 승패를 결정짓는 득점 상황에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는 16야드 써클(15.50m) 안에 들어 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하키경기 시 심판 판정에 가장 적합한 위치는 자기가 맡고 있는 경기장 반쪽 내 공격측의 오른쪽 위쪽이다.

국제 하키협회(FHI ：federation Internaton Hockey)에서 심판판정 시 가장 주의 상항으로 강조 하고 있는 항목은 경기규칙의 위반으로 어느 특정 팀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하는 부분이다 결국 훌륭한 심판이란 경기규칙을 최대한 잘 적용하여 거칠고 위험한 경기를 사전에 제거 시켜 부드러운 경기 분위기 속에서 선수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는 동시에 특정 팀이나 선수에게 불공평한 이익을 주지 않는 심판이다.

하키 경기의 가장 큰 특성을 최대한 보여 주기 위해서는 불필요 하게 경기가 중단되지 않도록 어드밴테이지 규칙을 최대한 적용 하면서 경기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유지시켜야 한다. 국제 하키협회에서도 하키경기가 현대 스포츠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좀 더 흥미롭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 진행을 위해서 심판들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경미하고 경기진해에 무리가 없는 경우 어드밴테이지를 주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고라든가 벌칙 부여를 하는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하키경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경기 규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 일관성 있게 한다는 점이다.

훌륭한 하키 심판은 경기의 수준을 저하 시키거나 흥미를 반감시키지 않아야 하며 전체 경기의분위기와 흐름을 정확히 판단하여 원활한 경기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여러 다양한 요소들이 중요 하게 작용된다.

다음은 대한 하키협회의 심판분과 위원회에서 제시한 올바른 심판 판정 및 경기운영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첫 번째 심판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일관성을 유지하고 느리거나 우유부단하지 않는 심판은 좋은 심판으로 존경을 받는다.

두 번째 코치와 선수들은 좌절시키는 것 중의 하나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심판이다.

세 번째 심판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심판을 본 기간이나 횟수가 아무리 길고 많아도 항상 매 경기마다 경기 전에 미팅 회의(보조심판)를 가져야 한다. 사전에 미팅을 하지 않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은 선생님이 강의 계획 없이 교실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네 번째 심판은 주목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좋은 심판을 보려면 경기 내내 주목을 받아야 한다. 심판의 신경을 거슬리거나 화나게 하는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안된다.

다섯 번째 심판은 침착해야 한다. 경기장에 나가서 자유롭게 심판을 보면서 경기를 즐긴다. 경기를 통제 하고 예방적 입장에서 심판을 본다.

여섯 번째 더 좋은 심판이 된다. 자기만족은 심판의 명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중에 무슨 일을 하든지 얼마나 명성이 대단하든지 당신은 모슨 시합에서 더 좋은 심판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Ⅲ-*2.* 운동의 태도

1. 태도의 개념

스포츠란 제도화 된 규칙에 의해 지매되는 경쟁적 인간의 신체 활동이라 할수 있으며, 스포츠가 옛날부터 교육의 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온 것은 스포츠에 경쟁이나 협동 장면을 교육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다라 혹은 연습이나 훈련의 과정을 지나 사회의 성원으로써 바람직한 특성을 몸에 베게 할 수 잇을 것이다. 태도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렸다. 태도란 개인의 접하는 모든 사물이나 사태에 대한 개인적 반응에 지시적이고 동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리고 경험에 의해 조직된 정신이고

신경적이 준비상태다. 또한 태도란 어떤 개인의 어떤 사회적 사물이나 사회적 행위에 대하여 갖는 찬동 혹은 불찬동의 경향이라고 했다. 사회적 사물 이라는 것은 교회, 학교, 정부, 종족과 같은 것을 말하며, 사회적 행위란 전쟁, 사형, 민주주의, 공산수의 같은 것을 뜻한다. 그리고 태도란 심리적 대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나 혹은 부정적으로 반응 하려는 경험을 통해 정서화된 경향이라고 말하고 있다. 태도가 경험에 의하여 학습되고 형성 된다는 것은 그것이 후천적 환경에 의한 영향 때문이라는 말이며, 이것은 더 나아가 교육목적, 교육방향에 시사하는 비중이 크다고 하겠다. 사람의 태도는 어릴 때부터 계속 형성되지만 사실은 단순히 새로운 태도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이미 있던 태도도 바뀌어져 나가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운동에 대한 태도란 운동의 내용 상황 등에 대해 개인이 어떻게 반응 하는 즉, 고유의 반응 경향이라 할 수 있겠다. 그 특징은 첫 번째, 학습을 통해 형성되는 반응 경향이다. 두 번째, 운동의 내용이나 상황에 관련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운동 과 개인과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세 번째 특히 정서적 속성을 동반한다. 결국 운동에 대한 반응을 감정적인 색채 예를 들면 좋아함, 싫어함 등의 가치를 동반한다. 네 번째 지속적이므로 한번 형성되면 매우 장기간 지속되며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없어지고 마는 경향은 없다. 다섯 번째 운동에 대한 태도라고 행도 운동에 따라 적용되는 범위는 다양하면 특수한 태도가 있는가 하면 일반적인 태도도 있다. 운동에 대한태도 변용의 원인은 태도 변용에 대한 균형 이론의 입장에서는 먼저는 운동에 즐거움을 경험함에 따라 운동에 인지가 높아지고 활발한 운동을 하게 된다는 순서로 적극적 운동 태도를 형성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즉 감정적 성분이 변화됨에 다라 인지적 성분, 행동적 성분에 영향을 주어 전체적으로 적극적인 운동 태도를 형성 시킨다는 것이다. 운동은 체력육성, 건강 등에 훌륭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설득하는 것에 다라 운동에 호의적 감정을 갖게 되어 운동에 대한 적극적 태도를 형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2. 태도의 특성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태도의 개념과 정의를 당양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태도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첫 번째 태도는 비교적 지속적이다. 두 번째 태도는 신념의 조직이다. 세 번째 태도는 특정 대상이나 상황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 네 번째 태도는 특정 반응을 보이려는 성향들의 조직체이다. 다섯 번째 태도는 선택적 반응을 유발한다. 태도의 특성은 주체가 특정의 대상에 대하여 갖는 주체적 준비상태인 주체 객체관계를 포함하며, 태도는 결코 인간이 생동적으로 지니게 되는 준비상태는 아니고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준비상태이며 여러 가지 정도의 감정적 특성을 가진 일시적인 상태와는 달리 지속하는 준비상태이다. 또한 상황에만 결부되는 개별적인 특수한 경우도 있고, 매우 넓은 범위의 다양한 대상화 관련된 일반적이 반응 경향을 나타낸다고 했다. 이와 같이 태도의 특성에서 언급한 것처럼 태도는 후천적으로 습득되는데 그것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습득 형성되는 즉 태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주요한 요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첫 번째 욕구충족 과정으로 개인이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태도를 형성하고 한번 형성된 태도는 더욱 배경적으로 강화되고 지속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자극대상에 대한 경험으로서 직접적이 경험이 적극적이고 또 동일 대상에 대하여 계속적인 접촉으로서 태도가 형성되는 것이다. 세 번째 정보에 의한 무엇을 알고 있거나 이해하고 잇느냐에 따라 태도가 형성되는 것이다. 네 번째 집단에의 참여로서 문화가치관은 개인의 동기와 태도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한 개인의 태도는 그가 속해 있는 집단의 성격에 의하여 형성된다. 다섯 번째 개인의 심리적 특성으로서 조직 구성원이 갖는 성격과 흥미 등의 심리적 특성이 태도형서에 영향을 미친다.

3. 태도의 기능

태도의 심리적 배경을 이루고 있는 퍼스낼리티와 관련하여 태도가 심리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예행하는가를 구명함으로써 태도 유지에 관한 근거를 이해하는데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행하여져 왔으며 태도는 여러 가지 기능을 분류하고 있다. 첫째 수단적, 적응적 또는 실용적 기능은 어떤 태도를 나타냄으로서 그의 요구를 최대한으로 충족시켜 이익을 가져오고 손해를 멀리하는 것이다. 둘째, 자아방어의 기능은 한 개인의 용납될 수 없는 자신의 충동이나 외부 세계의 가치를 현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가치표현의 기능의 개인의 가치의 자아 개념에 적절한 태도를 표현하는 데서 만족을 얻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은 자기표현, 자기발견, 자아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아 심리학과 상통한다. 넷째, 지식의 기능은 자신의 세계를 적절히 구성하려는 개인의 요구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개인은 여러 가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신념을 구축 할뿐 아니라 자신의 세계가 무질서한 것으로 되지 않도록 그 세계의 어떤 의미를 부여할 지식을 추구한다. 사람들은 목정달성과 연결하는 실용서이 기능과 대조적이다. 태도나 의견의 기능으로 3가지를 들고 있다. 첫 번째 사회적 적응기능으로서 이 기능은 태도나 사회관계를 촉진, 유지 또는 중단 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두 번째 외향화의 기능으로서 이 기능은 개인이 내부적으로 결정 하지 못한 갈등 상황에서 외부적 사건에 태도적인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 한 개인 속에서의 내부적이고 은밀한 노력이 그의 지각대상에 대한 태도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대상에 대한 태도 경향은 결국 내적 노력에 대한 태도는 개인이 좋아하는 적응 방법에 의하여 결정 된다. 세 번째 대상평가의 기능으로서 이 기능은 적절한 행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대상들을 분류하는 가능성을 말한다. 따라서 대상 평가는 정신분석 학자들이 말하는 현실검증을 돕는 인지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대상평가의 기능은 Katz의 인지기능보다는 오히려 실용성 기능과 유사하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06년 대한하키협회에 선수로 등록된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의 남·녀 각각 50명 총 300명을 설문조사 하였고, 포지션은 공격, 미드필더, 수비, 경력은 4년이하 선수부터 8년이상의 선수들로 구성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 인	구 분	빈도수(n)	백분율(%)
성 별	남 자	150	50.0
	여 자	150	50.0
	Total	300	100.0
소 속	고등학교	92	30.7
	대 학 교	82	27.3
	실 업	126	42.0
	Total	300	100.0
포지션	공 격	100	33.3
	미드필더	100	33.3
	수 비	100	33.3
	Total	300	100.0
경 력 (년)	4이하	56	18.7
	5이상-7이하	110	36.7
	8이상	134	44.7
	Total	300	100.0

2.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분석

1. 요인분석

본 연구는 예비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 문항의 타당도 검증을 실시한 후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타당성 검증은 Varimax방식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값이 0.5 이상인 요인들만 사용하였으며, 요인분석결과 심판인지도의 하위요인으로 심판판정, 공정성, 경험정도, 심판자세, 경기영향력의 다섯 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심판인지도 하위요인의 타당성 검증결과 Kaiser-Meyer- 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 0.832, Bartlett Test of Sphericity = 2098.638,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표 2>.

<표 2 > 심판판정의 인지도 요인분석 결과

문항	심판판정	공정성	경험정도	심판자세	경기영향력
Q1	.662	7.205E-02	-1.322E-02	-6.628E-02	.176
Q2	.538	5.400E-02	-5.025E-02	-.143	.172
Q7	.190	.744	-2.436E-02	-6.003E-02	-9.293E-02
Q8	.290	.661	-.160	-.142	-6.451E-02
Q5	2.809E-02	.620	-3.997E-02	4.462E-04	-.163
Q6	8.497E-02	.526	-6.759E-02	-.131	-5.500E-02
Q13	.210	4.406E-02	.688	.107	-8.595E-02
Q14	.213	-6.649E-02	.670	3.317E-03	5.369E-02
Q11	3.580E-02	-1.675E-02	.669	8.396E-02	-.254
Q16	-7.707E-02	2.469E-02	5.621E-02	.696	4.572E-02
Q17	-.286	2.241E-02	.179	.576	-1.871E-02
Q19	.240	-6.504E-02	9.219E-02	.554	.217
Q20	-.136	.100	9.926E-02	5.857E-02	.741
Q21	-6.181E-02	-1.919E-02	-4.828E-02	.161	.705

2. 신뢰도분석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판인지도 하위요인에 대한 신뢰성을 분석한 결과 심판판정 0.8789, 공정성은 0.8895, 경험정도 0.8105, 심판자세0.8446, 경기영향력 0.8024로 나타나 신뢰성 계수가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3 > 심판의 인지도에 대한 신뢰도분석 결과

요 인		항목	Cronbach's Alpha
심 판 인지도	심판판정	Q1, Q2	.8789
	공정성	Q5, Q6, Q7, Q8	.8895
	경험정도	Q11, Q13, Q14	.8105
	심판자세	Q16, Q17, Q19	.8446
	경기영향력	Q20, Q21	.8024

3. 연구 기간

연구 단계	세 부 일 정
연구계획 및 자료수집	2005년 8월 1일 ~ 2005년 12월 30일
설문지 작성	2006년 1월 1일 ~ 2006년 1월 20일
설문지 검사 및 수정	2006년 1월 20일 ~ 2006년 2월 10일
설문지 배부 및 회수	2006년 2월 10일 ~ 2006년 3월 8일
자료처리	2006년 3월 8일 ~ 2006년 3월 25일
논문작성	2006년 3월 25일 ~ 2006년 5월 10일

4. 조사 도구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하키심판들에 대한 선수들의 인지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설문지로 각 문항은Likert식의 5점 평정척도로 구성하여, 선행연구에서 설문지의 신뢰도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여 사용하였던 도구 가운데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설문지 정말순(2000),이미옥(2002), 윤동식(1998)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선별하고 완성하여 예비검사를 통하여 설문내용의 적합성과 적용가능성을 검토한 후 수정·보완하여 본 연구의 측정 도구로 사용 하였다.

5. 조사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작성된 설문지를 선수들에게 배포함에 있어 각 팀 지도자 및 선수를 직접 만나서 연구의 취지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조사를 허락받아 실시하여 의며 설문내용에 있어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ering)으로 설문지 작성 하였다.

6.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를 위해 조사된 설문지는 SPSS/ 11.0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료 처리를 하였다.

1. 설문지의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Varimax를 이용한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2.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에 따른 하키 심판의 인지도(심판판정, 공정성, 경험정도, 심판자세. 경기영향력)의 차이검증을 위하여 독립표본 t-test(Independent

Samples t-test)를 실시하였다.

4.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소속, 포지션, 경력에 따른 하키 심판의 인지도(심판판정, 공정성, 경험정도, 심판자세. 경기영향력)의 차이 검증을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있을 시 scheffe를 이용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5. 유의수준은 α=.05로 설정하였다.

Ⅳ.연구결과 및 논의

1. 성별에 따른 심판의 인지도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심판의 인지도 중 심판판정에서는 여자 2.91±.61로 남자 2.73±.72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p<.05수준에서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판공정성은 여자 2.91±.52, 남자 2.90±.66으로 나타났고, 경험정도여자 2.81±.61, 남자 2.75±.74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심판 자세는 여자 3.11±.52로 남자 3.09±.51보다 높게 나타났고, 경기영향력은 여자 2.96±49, 남자2.92±.46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심판의 인지도에서는 심판판정을 제외한 공정성, 경험정도, 심판자세, 경기영향력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모든 인지도의 하위요인에서 여자선수가 남자선수보다 높게 응답을 하였다.

<표 4> 성별에 따른 심판의 인지도

변 인	남 자		여 자		t	p
	M	SD	M	SD		
심판판정	2.73	.72	2.91	.61	5.507	.020*
공정성	2.90	.66	2.91	.53	.015	.904
경험정도	2.75	.74	2.81	.61	.589	.443
심판자세	3.09	.51	3.11	.52	.171	.680
경기영향력	2.92	.46	2.96	.49	.589	.443

* p<.05

2. 소속에 따른 심판의 인지도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속에 따른 심판의 인지도 중 공정성에서는 고등학교 3.08±.63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하였고, 대학교 2.89±.52, 실업 2.73±.58순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p<.001수준에서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결과 고등학교선수와 실업 선수 수간에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경험정도에서는 고등학교 3.02±.66, 대학교 2,85±.64, 실업 2.48±.62순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p<.001수준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났으며,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고등학교선수와 대학교선수가 실업 선수 간에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경기영향력에서는 고등학교 3.09±.54, 대학교 3.00±.43, 실업 2.74±.38순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p<.001수준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났으며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고등학교선수와 대학교선수가 실업 선수 간에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심판의 판정에서는 고등학교선수 2.87±.71, 대학교선수 2.85±.60, 실업 2.72±.69 순으로 나타났으며, 심판 자세에서는 대학교 3.15±.44, 고등학교 3.14±.60, 실업 3.00±48순으로 나타나 심판 자세를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에서 고등학교선수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공정성, 경험정도, 경기영향력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표 5> 소속에 따른 심판의 인지도

변 인	고등학교		대학교		실 업		F	p	Post-hoc
	M	SD	M	SD	M	SD			
심판판정	2.87	.71	2.85	.60	2.72	.69	1.571	.210	
공정성	3.08	.63	2.89	.52	2.73	.58	9.356	.000***	고-실
경험정도	3.02	.66	2.85	.64	2.48	.62	18.768	.000***	고,대-실
심판자세	3.14	.60	3.15	.44	3.00	.48	2.662	.071	
경기영향력	3.09	.54	3.00	.43	2.74	.38	15.214	.000***	고,대-실

*** p<.001

3. 포지션에 따른 심판의 인지도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지션에 따른 심판의 인지도 중 경험정도에서는 미드필더 3.15±.66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하였고, 수비 2.76±.66, 공격 2.76±.72순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p<.001수준에서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결과 공격과 수비선수가 미드필더 선수 간에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경기영향력에서는 공격 3.24±.48로 가장 높은 응답을 하였고, 미드필더 2.96±.47, 수비 2.92±.48순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p<.001수준에서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결과 공격과 미드필더선수와 수비 선수 간에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심판판정에서는 수비선수가 2,84±.72, 공격 2.82±.64, 미드필더 2.79±.63순으로 나타났으며, 공정성은 공격 2.91±.58, 수비 2.91±.65, 미드필더 2.88±.53순으로 나타났다. 심판 자세는 공격 3.12±.45로 가장 높은 응답을 하였고, 미드필더 3.11±.53, 수비 3.08±.54순으로 응답하였으나 경험정도요인과 경기영향력요인을 제외한 심판판정, 공정성, 심판 자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포지션에 따른 심판의 인지도

변 인	공 격		미드필더		수 비		F	p	Post-hoc
	M	SD	M	SD	M	SD			
심판판정	2.82	.64	2.79	.63	2.84	.72	.142	.868	
공정성	2.91	.58	2.88	.53	2.91	.65	.044	.957	
경험정도	2.76	.72	3.15	.66	2.76	.66	8.475	.000***	공,수-미
심판자세	3.12	.45	3.11	.53	3.08	.54	.160	.852	
경기영향력	3.24	.48	2.96	.47	2.92	.48	7.373	.000***	공-미,수

*** p<.001

4. 경력에 따른 심판의 인지도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력에 따른 심판의 인지도 중 공정성에서는 5년이상-7년이하 3.03±.59로 가장 높은 응답을 하였고, 4년이하 3.00±.58, 8년이상 2.75±.58 순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p<.001수준에서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결과 5년이상-7년이하 선수와 8년이상 선수간에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경험정도에서는 4년이하 3.01±.63, 5년이상-7년이하 2,98±.66, 8년이상 2.59±.66순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p<.001수준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4년이하선수와 5년이상-7년이상선수가 8년이상 선수간에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경기영향력에서는 4년이하 3.07±.49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5년이상-7년이하 3.02±.50, 8년이상 2.83±.42순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p<.001수준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났으며,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4년이하선수와 5년이상-7년이상선수가 8년이상 선수간에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심판의 판정에서는 5년이상-7년이하 2.89±.67, 4년이하 2.80±.62, 8년이상 2.76±.69 순으로 나타났으며, 심판자세에서는 4년이하 3.14±.54, 5년이상-7년이하 3.13±.54, 8년이상 3.06±48순으로 나타나 경력이 작은 4년이하선수들이 모든 하위요인에서 높은 응답을 하였으며, 경력이 높아질수록 낮은 응답을 하여, 공정성, 경험정도, 경기영향력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경력에 따른 심판의 인지도 (단위:년)

변 인	4이하(1)		5-7(2)		8이상(3)		F	p	Post-hoc
	M	SD	M	SD	M	SD			
심판판정	2.80	.62	2.89	.67	2.76	.69	1.149	.318	
공정성	3.00	.58	3.03	.59	2.75	.58	7.761	.001***	2-3
경험정도	3.01	.63	2.98	.66	2.59	.66	11.027	.000***	1,2-3
심판자세	3.14	.54	3.13	.54	3.06	.48	.715	.490	
경기영향력	3.07	.49	3.02	.50	2.83	.42	7.834	.000***	1,2-3

*** p<.001

V.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는 하키경기의 심판 판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불공전한 판정을 줄이기 위해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하키 심판들에 대한 선수들의 인지도를 조사하여 심판이 지닌 문제점을 제시하고, 심판상호간의 신뢰회복과 경기발전의 개선책을 목적을 두고 2006년 대한하키협회 하키선수로 등록된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남.여 각 각50명씩 총3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통계프로그램인 SPSS11.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심판인지도문항의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 번째. 성별에 따른 심판의 인지도 중 성별에서는 심판판정($p<.05$)을 제외한 공정성, 경험정도, 심판자세, 경기영향력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모든 인지도의 하위요인에서 여자선수가 남자선수보다 높게 응답을 하였다.

두 번째. 소속에 따른 심판의 인지도 중 공정성에서는 심판 자세를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에서 고등학교선수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공정성($p<.001$), 경험정도($p<.001$), 경기영향력($p<.001$)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세 번째, 포지션에 따른 심판의 인지도 중 경험정도에서는 경험정도($p<.001$)요인과 경기영향력($p<.001$)요인을 제외한 심판판정, 공정성, 심판 자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네 번째. 선수경력에 따른 심판의 인지도 중 공정성에서는 경력이 작은 4년이하 선수들이 모든 하위요인에서 높은 응답을 하였으며, 경력이 높아질수록 낮은 응답을 하여, 공정성($p<.001$), 경험정도($p<.001$), 경기영향력($p<.001$)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제 언

본 연구를 수행해가는 과정 속에서의 문제점과 결과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 번째, 하키 선수들의 심판에 대한 인지도 조사는 전반적으로 응답의 결과 값이 보통 수치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응답형태를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이는 시합 기간 중 설문지 배포로 인해 시합에 컨디션이나 팀 분위기를 맞추어 놓은 상태라서 지도자들의 설문지 응답에 대한 협조가 어려웠으며 설문에 응답한 선수들 또 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답의 충실성이 낮은 듯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전 충분한 설명을 통해 선수나 지도자의 호응도를 높여 내용 충실도를 높이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하키 심판원 및 심판판정인식에 대한 단순한 비교, 기술하는 연구의 벗어나, 선수들의 심판 판정인식에 따라 경기력에 미치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영향 요인을 찾아내어 실제 하키 현장에 적용 할 수 있는 분석적 연구가 절실히 요구 된다.

세 번째, 국제 수준의 우수한 심판원을 많이 배출하여 국제적 경쟁력과 한국 하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키인 들의 자성과 실천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사료 된다고 본다. 더욱이 규칙은 급속히 변화하는 현실을 감안 할 때, 정확한 판단과 주변 환경요인에도 흔들리지 않는 판정, 공정하고 신속한 판단력은 어느 때 보다 더욱 중요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김사엽・김희중(2000). 중・고등학교 하키 선수들의 심판 판정에 대한 의식 조사 연구한국 체육학회지 제29권, 제3호pp.110-118

김원철(1986). 하키 슛팅 요인 분석연구. 하키 ,제 4권 1호

김종철(1995). 동 경기 심판들의 의식에 대한 조사연구 .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홍대(1974). 심판의 태도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김희중(2000). 하키심판 판정이 중, 고등학교 선수들의 의식 및 경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학렬(1994). 레스링 경기의 심판판정에 대한 인식조사. 1급경기지도자 연수구료 논문집

대한하키협회(2005). 전국 하키 심판 및 지도자 강습회. 심판 분과 위원회.

박상록(1996). 심판의 판정에 대한 구기운동선수들의 의식에 관한 조사 분석. 경성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일환(1996). 운동선수 의 윤리 관점에 대한 연구. 전북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박찬희(1991). 스포츠의 도덕성 회복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신현주(1994). 하키 경기의 기원과 발달. 대한 하키 협회, 제 6권1호

윤동식(1998). 유도선수들의 심판 판정 결과에 따른 심리적 고찰.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팔(1985). 체육 경기 심판원의 소양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이미옥(2002). 하키 선수들의 심판 판정 인식에 따른 심리 상태 및 경기 영향도 분석 한국 체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번장 과 김동진(1985). 스포츠 스리즈14 하키 서울, 동양문화사

이종목(1990). 태권도경기에 있어서 심판의 태도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진성(2005). 태권도 선수들의 심판 판정 인식에 따른 심리 상태 및 경기 영향도 분석.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이학래(1998). 스포츠와 인간승리. 도서출판 사람과 사람들

정말순(2000). 배구 심판에 대한 선수들이 인지도 조사.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조명준(1999). 하키 경기의 슛팅 분석 순천향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창우(2002). 대학축구 선수들의 심판 인식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선길(1995). 스포츠의 윤리적 행위준칙으로서 스포츠맨십이 갖는 의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형윤 과 조영권(1993). wrestling 경기 심판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전남대학교 스포츠 과학연구소.

최정혁(1994). 레스링 선수의 심판 판정에 관한 연구 : 내 대학 선수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재만(1982). 축구 심판의 판정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AIex moor (1986). ballroom dacing black london, 1-6

buhague, g (1979). music in latin america". prentic hall. new jarsey.

BIair(1997). volley ball the game of volley has changed-sohare the officials REFEREE.2(1)28-31

Carolyne thornas(1997). sporesin philosoplry conteye :이진수역 양철문

Federation Internation de hockey(1999). Refereeing Guidelines.

william R. Smith(1999). Alittle bit at a time. REFEREE.24(9),56-61

〈 부　　록 〉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하키경기 시 심판판정에 대하여 선수들이 갖고 있는 인지도 조사하고, 그 통계를 연구 하여 선수 자신과 심판에 대한 불신과 심판들의 자아 반성으로 심판과 선수들 간에 시각 차이를 좁혀, 하키경기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만든 것 입니다.

본 설문지를 통하여 얻어지는 정보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신 시간을 할에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하키 발전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 합 니 다.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석사과정 김　철

다음 문장을 읽고 현재 자신의 느낌을 적합한 숫자에 ∨표 하시오. 옳고 그른 답이 있는 것은 아니며, 한 문장에 너무 많은 시간을 생각하지 말고 현재의 느낌을 나타내는 숫자에 표시해 주십시오.

Ⅰ. 다음은 인구사회학적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는 포지션의 선수입니까? ① 공격 ② 미드필드 ③ 수비(골키퍼)

3. 귀하의 소속은? ① 고등학교 ② 대학교 ③ 실업팀

4. 귀하의 선수경력은? ①4년이하 ② 5년이상~7년미만 ③ 8년이상

Ⅱ 다음은 심판에 대한 질문입니다.

⇒ 다음 질문은 최근 출전했던 시합 중에 느꼈던 하키 심판에 대한인지도 조사입니다. 당신의 느낌과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기 바랍니다.

▶ 심판 판정에 대한 일반적인 인지도 조사입니다.

1. 최근 1년 이내에 출전한 경기에서, 심판의 판정에 대해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하키의 심판의 판정이 다른 운동종목보다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심판의 순간 실수(착각)로 인한 잘못된 판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 심판판정 시, 고의적인 (잘못된 판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심판에 관한 공정성>

5. 귀하는 대회의 심판 배정에 대해서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 귀하는 심판이 대회 중 얼마나 공정한 판정을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 심판의 협회소속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8. 심판의 지역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9. 심판의 혈연·지연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0. 귀하는 심판으로부터 부당한 판정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심판의 경험정도>

11. 귀하는 심판이 풍부한 심판경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2. 귀하는 심판이 풍부한 경기 경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3. 귀하는 심판이 경기 기술과 직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4. 귀하는 심판이 심판경험을 많이 쌓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심판의 자세>

15. 귀하는 심판이 뚜렷한 경기판정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6. 귀하는 심판이 특정선수(자신의 제자 또는 아는 선수)에게 판정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7. 귀하는 심판이 경기에 대한 애착심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8. 귀하는 심판이 예리한 눈으로 모든 선수들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9. 귀하는 심판의 고의적인 판정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심판에 의한 경기 영향력>

20. 귀하는 심판의 판정에 의해 승·패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1. 그렇다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80%이상 ②80~60%미만 ③60~40미만 ④40~20미만 ⑤ 20%이하

22.귀하는 심판의 판정에 의해 경기력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끝까지 설문 조사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